

영광 애플망고, 전국 최고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

기후변화 위기 대응·고소득 작목...7개 농가 7.4ha 재배 높은 당도·풍부한 과즙...서울 가락시장서 최고가 기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 전략작목인 애플망고를 지역 대표 고소득 품목으로 육성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브랜드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장세일 군수는 염산면 신성리의 애플망고 재배농가인 최유리·나광진 농가를 찾아 수확과 출하를 앞둔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과수 재배 현황을 살피고, 고품질 애플망고 생산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후변화로 국내 과수 재배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애플망고는 새로운 고소득 전략작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광군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재

배기술 보급과 시설 지원을 확대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현재 영광에서는 7개 농가가 7.4ha 규모에서 애플망고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 재배면적의 약 2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철저한 재배관리와 안정적인 생육환경을 바탕으로 품질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 대표 아열대 과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광산 애플망고는 선명한 색깔과 풍부한 향, 높은 당도, 풍부한 과즙을 갖춰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청과물 유통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에서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 7월 29일 기준 1박스당 10만~13만원에 거래돼 타 지역 생산품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하며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재배 농가들도 애플망고가 기존 노지 과수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작목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시설 투자와 재배기술 고도화, 판로 확대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군은 앞으로 재배면적 확대와 함께 품질 고급화, 전문기술 교육, 유통망 다변화 등을 통해 애플망고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영광 애플망고를 전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욱 영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애플망고는 기후변화 시대 영광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고소득 작목”이라며 “생산기반 확충과 재배기술 지원, 유통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영광에서 생산되는 애플망고가 전국 최고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gwangnam.co.kr



장세일 영광군수는 염산면 신성리의 애플망고 재배농가를 찾아 수확과 출하를 앞둔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청

‘함께 잘사는 더 행복한 담양’ 민선 9기 출항

첫 정례조화...군정 비전 공유
군민 중심 행정 실천의지 다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은 최근 군청 연양정실에서 공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첫 정례조화를 개최하고 새로운 군정 비전과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정례조화에서는 전국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 대상 수상자와 상반기 베스트 공무원,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식을 열고 군정 발전과 군민 만족 행정 구현에 기여한 수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종원 군수는 “민선 9기 4년은 군수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실천과 열정이 모여 완성된다”며 “군민의 작은 불편에도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방법을 먼저 고민하는 행정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은 최근 군청 연양정실에서 공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첫 정례조화를 개최하고 새로운 군정 비전과 방향을 공유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청

이어 “담양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인공지능 대전환, 광주·전남 통합 등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서 있다”며 “모든 부서가 하나의 팀이라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 군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공직자들은 민선 9기 군정 구호인 ‘특별시의 중심축! 역동하는 담양’과 군정 목표인 ‘함께 잘사는 더 행복한 담양’을 함께 제창하며 군정 비전을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담양=이시수 기자 lss270@gwangnam.co.kr

여수, ‘섬의 날’ 앞두고 물가안정 특별관리

전남광주특별자치 여수시는 6월부터 9월 까지 개최되는 ‘2026년 섬의 날’ 행사를 앞두고 여수엑스포장 일원의 물가안정과 건전한 가격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점검과 제도활동을 강화하는 등 물가안정 특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숙박·음식업소를 비롯해 편의점, 카페 등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물가안정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와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바가지요금 근절과 친절서비스 실천을 당부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여수엑스포장 인근 편의점과 카페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격표시제 준수와 건전한 가격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를 줄 것을 요청했다.

여수=송영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장성 가축우시장 준공...‘명품 한우’ 명성 잇는다

총사업비 92억 투입...스마트 전자 경매 시스템 도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60년 역사의 황룡면 가축우시장을 새롭게 준공,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유통 환경을 구축했다.

5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신축 가축우시장(황룡면 신호리 716-53)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황룡우시장은 1968년 황룡전통시장에 개설된 이후 국내 한우 시장 성장과 함께 규모를 확대해 왔다. 연평균 8000두의 소가 거래되며 호남권을 대표하는 가축 유통시설이자 오랜 기간 지역 축산업과 전통시장 경제를 지탱해왔다.

하지만 오랜 운영으로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악취와 소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군은 지난 2022년부터 황룡우시장 신축 이전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후 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가축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23년 전남도 군특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사업비 18억원을 확보했다. 2023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장성축협이 일대 부지를 확보하면서 사업이 구체화됐으며 지난해 12월 공사에 착수했다.

황룡강 인근에 위치한 신축 가축우시장의 건립에는 총사업비 92억원이 투입됐다. 기존 우시장보다 3배 가까이 넓어진 1만1525㎡ 부지에 대회의실, 휴게실, 식당, 183면 규모의 주차장 등을 갖췄다. 소 계류 두수도 385두로 2

배 이상 늘어났다. 고객용 통로 설치 등 이용 편의성도 충분히 확보했다.

가축 방역시설을 강화해 한층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유통 환경도 구축했다. 현대식 소독 시설을 구축해 가축 전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축산업과 지역 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한중 군수는 “지역 축산인과 군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셨기에 가축우시장 신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호남권의 대표적 인 가축유통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

화순, 데이터 기반 관수...스마트농업 확산

시설원예농가 총 40대 배치 함수를 측정장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은 시설원예 농가의 정밀한 관수관리를 지원하고 스마트농업 기반 확산을 위해 최근 데이터 기반 배치 함수를 측정장비 3대를 보급했다.

배치 함수를 측정장비는 급액 전후와 작물의 수분 흡수·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배치 무게 변화를 정밀하게 측

정해 양액 공급량과 공급 간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배액의 pH와 EC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작물이 최적의 환경에서 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안정적인 생육환경 조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군은 데이터 기반 정밀 관수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배

지 함수를 측정장비를 40대 보급하며 스마트 영농 기반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군에서 운영하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에서는 다양한 과채류를 실증 재배하고 있으며 신규·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장비 활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기술 보급에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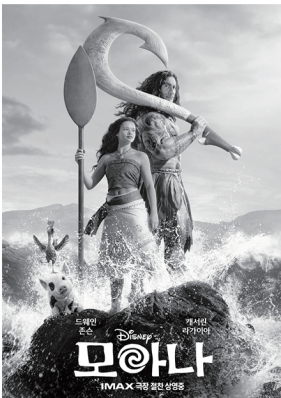
최은순 화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도 신규·청년 농업인이 스마트 영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기술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메가박스 광주상무점 현재상영작

MEGABOX

www.megabox.co.kr

ARS 1544-0070



새롭게 개편된
리클라이너 영화관!

메가박스 광주 상무점에서
만나요!

